최고다! 兄… KIA, 이틀 연속 곰 사냥

최형우 역전타·박찬호 4안타…두산에 6-2 승 '위닝시리즈'
네일 5.2이닝 2실점 호투 '3승 불발'…전상현·조상우 '홀드'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가 20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7회 역전 결승타를 터트리고 있다. /연합뉴스

KIA 박찬호가 4안타 활약으로 두산전 위닝 시리즈를 이끌었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3차전에서 6-2 승리를 거뒀다. 선발 싸움에서는 두산이 앞섰지만 승리는 KIA 차지가 됐다. 톱 타자 박찬호가 4안타와 함께 재치 있는 주루로 2득점을 만들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KIA 제임스 네일과 두산 잭로그의 선발 맞대결에서는 잭로그가 승자가 됐다.

잭로그는 86개의 공으로 5회까지 던지면서 2피안타 3볼넷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매 이닝 주자를 내보냈던 네일은 5회에도 조수행과 정수빈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무사 1·2루에 몰렸다. 유격수 박찬호가 케이브의 직선타를 잡은 뒤 2루 베이스를 밟아 동시에 투아웃을 만들었다. 이어 포수 김태군이 도루를 시도한 정수빈을 잡아내면서 5회는 실점 없이 끝났다.

6회 위기는 넘지 못했다.

0-0으로 맞선 6회말 양의지를 선두타자로 맞은 네일이 우전 안타를 허용했다. 이어 양석환의 좌측 2루타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무사 2·3루가 됐다.

네일이 김인태를 스탠딩 삼진으로 처리한 뒤 강승호는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투아웃은 만들었다. 하지만 박준영에게 우전 적시타를 맞으면서 2실점을 했다.

이범호 감독은 네일을 내리고 최지민을 투입하며 불펜 싸움을 시작했다. 최지민이 우익수 플라이로 박준순을 돌려세우면서 추가 실점은 없었다. 이와 함께 네일의 6번째 등판은 5.2이닝(100구) 8피안타 2볼넷 7탈삼진 2실점으로 마무리됐다.

뒷심 싸움에서는 KIA가 앞섰다.

6회까지 6개의 잔루만 남겼던 KIA가 7회 침묵을 깼다.

오선우가 김태군의 대타로 나와 2구째 중전 안타를 기록했다. 최원준이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박찬호가 우익수 앞에 공을 떨구면서 1사 1·2루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선빈이 좌측 2루타로 2루에 있던 오선우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야수 선택으로 KIA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나성범의 2루 땅볼 때 두산 2루수 박준순이 홈승부를 선택했지만 3루 주자 박찬호가 재치 있게 홈 베이스를 찍으면서 2-2를 만들었다. 분위기를 탄 KIA는 최형우의 적시타로 3-2, 리드를 가져왔다.

불펜진도 위기는 있었지만 실점하지 않고 마운드를 지켰다.

3-2로 앞선 7회말 최지민이 볼넷과 안타로 1사 1·2루에 몰리자, 전상현이 출격해 양의지와 양석환을 각각 우익수 플라이 아웃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8회에는 조상우가 나와 선두타자 김인태를 중전 안타로 내보냈지만 강승호를 3루 땅볼로 잡은 뒤, 견제사로 대주자 전다민을 처리했다. 박준영은 8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이닝을 끝냈다.

불펜이 버티자 타자들이 응답했다.

9회초 박찬호가 선두타자로 나와 좌전안타를 날리면서 4안타를 장식했다. 행운도 따랐다. 홍종표의 희생번트 때 투수 악송구가 나오면서 무사 2·3루가 됐다. 나성범이 파울 홈런 뒤 우측으로 타구를 보냈지만 3루 주자 박찬호가 움직이기에는 거리가 짧았다. 하지만 박찬호가 홈 방향으로 움직이자 포수 양의지가 3루로 공을 던졌다. 박찬호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귀루를 시도했고, 악송구가 나왔다.

공이 뒤로 빠진 사이 박찬호가 홈을 밟았다. 이어 KIA는 위즈덤의 중견수 키 넘는 2루타와 상대 유격수 포구 실책을 묶어 6-2를 만들었다.

9회말 마무리 정해영이 출격했다. 전날 1.1이닝 세이브를 했던 정해영이 첫 타자 김민석에게 유격수 내야 안타를 허용했다. 조수행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정수빈과 케이브에게 연달아 볼넷을 허용하면서 1사 만루가 됐다.

위기 상황에서 행운의 삼진이 나왔다. 포수 한승택이 요구한 것과 달리 공이 낮게 오면서 3구 삼진이 기록됐다. 그리고 양석환의 3루 땅볼이 나오면서 경기는 6-2 KIA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전날 최원준의 3안타 활약으로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두산전 5연패에서 탈출했던 KIA는 시즌 첫 맞대결을 위닝시리즈로 장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입술 부상' 김선빈, 이 악물고 뛰다

복귀날 1루수와 충돌로 입술 안쪽 봉합…하루 쉬고 20일 출전

'부상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KIA는 김도영의 개막전 햄스트링 부상을 시작으로 올 시즌 줄부상에 고전하고 있다. 내야수 박찬호와 김선빈도 부상자로 이름을 올렸고, 좌완 곽도규는 인대 손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무리했다.

이범호 감독은 지난 18일 부상 때문에 다시 한번 애를 태웠다.

이범호 감독은 이날 부상에서 회복한 김선빈을 콜업해 2번 타자 겸 2루수 역할을 맡겼다.

1회 첫 타석에서 콜어빈의 초구를 공략해 1루수 땅볼로 물러난 김선빈은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6구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아웃됐다.

6회 세 번째 타석에는 희생번트에 성공, 볼넷으로 출루한 박찬호를 2루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김선빈은 1루에서 베이스 커버에 들어 온 두산 2루수 박계범과 충돌하면서 쓰러졌다.

한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김선빈은 대주자 홍종표와 교체돼 그라운드에서 벗어났다.

부상 복귀날 다시 김선빈이 부상으로 이탈하자 KIA 덕아웃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날 경기는 1-7 패로 끝났다.

노심초사 김선빈의 검진 결과를 기다렸던 이범호 감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선빈은 윗입술 안쪽이 찢어지면서 두 바늘 꿰매야 했지만 정밀 검진 결과 치아와 턱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19일 하루 휴식을 취한 김선빈은 20일 2번 타자 겸 2루수로 다시 그라운드에 섰고, 기대했던 역할을 해줬다.

1회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했던 김선빈은 3회에도 볼넷을 골라냈다. 이번에는 8구 승부를 하면서 상대 선발 잭로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7회에는 복귀 후 첫 안타로 타점도 올렸다. 김선빈은 0-2로 뒤진 1사 1·2루에서 좌측 2루타를 날리면서 1타점을 책임진 뒤, 대주자 홍종표로 교체됐다.

이후 KIA는 이닝에서 역전까지 성공했고, 6-2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LPGA '장타 여왕' 방신실 '뒷심'도 좋네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5 우승…상금·대상 포인트 1위

20일 경남 김해 가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5'에서 우승한 방신실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타 여왕' 방신실(20)이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시즌 첫 승이자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방신실은 20일 경남 김해 가야 컨트리클럽(파72·6836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5(총상금 9억원) 마지막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잡아내며 7언더파 65타를 쳤다.

그는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2위 마다솜(12언더파 204타)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우승 상금 1억6200만원과 대상 포인트 60점을 받은 방신실은 상금 순위 1위(2억8912만420원), 대상 포인트 1위(120점)에 올랐다.

2라운드까지 선두 박지영에게 두 타 차로 밀려 공동 5위에 머문 방신실은 이날 4번 홀(파4)과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시동을 걸었다.

라운드 초반 5위권 밖에서 경쟁하던 방신실은 후반에 경기를 뒤집었다.

특유의 장타를 앞세워 공격적인 경기를 이어가던 방신실은 14번 홀(파4)에서 7.86m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기세를 끌어올렸다.

그는 15번 홀(파4)에서도 버디를 잡더니 17번 홀(파3)과 18번 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로 점프했다. 2위를 달리던 박지영과 마다솜은 격차를 줄이지 못했고, 경기를 지켜보던 방신실은 우승이 확정되자 환하게 웃었다.

2023년 KLPGA에 입회한 방신실은 그해 2승을 올렸으나 지난해엔 2위만 3차례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도 번번이 우승 기회를 놓쳤다. 지난 13일 막을 내린 iM금융오픈에선 공동 2위에 오르며 우승 기회를 날렸다.

당시 방신실은 마지막 라운드 17번 홀에서 1.5m 파 퍼트를 놓치며 김민주에게 우승 트로피를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방신실은 이번 대회 마지막 라운드 후반에 집중력을 발휘하며 2023년 10월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우승 이후 1년 6개월 만에 활짝 웃었다.

이번 대회가 열린 가야 컨트리클럽은 지난 시즌 투어 최장 코스를 기록한 대형 골프장이다.

2023년부터 2년 연속 드라이브 거리 1위를 기록한 방신실에겐 유리한 코스였다.

2라운드까지 1위를 달리던 박지영은 이날 3언더파 69타,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이동은, 유현조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이 대회 3연패를 노렸던 최은우는 9언더파 207타로 공동 9위를 기록했고, iM금융오픈 우승자인 김민주는 10언더파 206타로 공동 6위에 만족했다.

/연합뉴스

신인왕 놓쳤지만…김백준, KPGA 개막전 우승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신인왕을 간발의 차이로 놓치고선 올해는 대상을 받아 설욕하겠다던 2년 차 김백준이 시즌 개막전 정상에 올랐다.

김백준은 20일 강원도 춘천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 올드코스(파71)에서 열린 KPGA 투어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2개로 이븐파 71타를 쳐 최종 합계 11언더파 273타로 우승했다.

이상희와 옥태훈을 2타 차로 따돌린 김백준은 KPGA 투어 통산 25번째 출전 경기이자 프로 신분으로는 19번째 출전한 경기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2억원.

김백준은 국가대표 시절이던 2019년 전국체전 개인전 금메달을 땄고 2021년 아마추어 초청선수로 출전한 KPGA 투어 특급 대회 SK텔레콤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은 기대주였다.

그러나 김백준은 늘 동갑 조우영과 한살 아래 장유빈의 그늘에 가렸다.

신인이던 지난해 장유빈은 2승을 올리고 상금왕과 대상을 휩쓸었고, 조우영도 한 차례 우승에 상금랭킹 4위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시즌 내내 신인왕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렸으나 마지막 대회 투어 챔피언십에서 송민혁에게 역전을 허용, 평생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신인왕을 놓쳤다.

절치부심한 김백준은 겨울 훈련 동안 체중을 3kg 늘리고 스윙 스피드를 끌어 올려 KPGA 투어에서 남부럽지 않은 장타력을 갖췄고, 장기인 아이언샷은 더 날카롭게 다듬어 이번 시즌 목표를 '3승'과 '대상 수상'으로 잡았다.

김백준은 개막전 우승으로 목표로 내세운 3승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고 대상 경쟁에서도 한 발 앞서나가게 됐다.

옥태훈에게 3타 앞선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백준은 첫 우승 기회에서 답답한 경기를 펼쳤다. 1, 2번 홀 연속 보기 위기를 넘긴 김백준은 좀체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5번 홀(파5) 버디로 2타 차로 좁혔던 옥태훈이 6번 홀(파4) 더블보기로 물러선 게 김백준에게는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희가 무섭게 추격했다.

이상희는 4번 홀까지 버디 3개, 보기 1개로 따라붙더니 7번 홀(파3) 홀인원으로 단숨에 1타 차로 추격했다. 이상희가 8번 홀(파4) 보기로 주춤했지만, 김백준은 9번 홀(파4)에서 티샷 실수로 1타를 잃어 또 1타 차로 쫓겼다.

답답하던 김백준은 15번 홀(파5)에서 이날 첫 버디를 낚아 한숨을 돌렸다.

김백준은 17번 홀(파3) 3퍼트 보기로 1타 차로 다시 쫓겼지만 18번 홀(파4) 버디로 우승을 자축했다.

/연합뉴스